

누가복음 16장 19-31절 말씀

-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풀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
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
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
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
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
-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
부자도 죽어 장사되매
-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
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
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
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
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
- 25 아브라함이 이르되
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
이것을 기억하라
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
-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
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
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
-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
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
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
- 29 아브라함이 이르되
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
-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
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
-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
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
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